창 간 사

김 숙 향
대한치과위생학회 회장

대한치과위생학회지 창간호를 발행하면서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치과위생학회는 회원의 학술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치과위생학 및 치의학의 지속적인 연구와 보급을 위하여 분과학회를 구성하여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치과위생사 영역을 확대하여 국민보건과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9월 9일 발기총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1999년도에는 학회 회칙에 따라 구강건강증진분과학회, 소아 · 특수관리분과학회, 치과심미수복위생분과학회, 치과임상외과위생분과학회, 치과의료관리분과학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임원선출과 사업계획을 편성하여 학술집담회와 학술대회 개최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3월, 10월, 12월에 각 분과학회와 관련된 주제로 학술집담회를 통하여 최신의 지식을 회원과 서로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며, 6월에는 종합학술대회를 실시하여 회원들이 연구한 논문발표와 치과위생사의 학술발전을 위한 특강도 가질 계획입니다.

치과위생사가 전문직업인으로 새롭게 발돋음할 수 있도록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리 학회가 교육을 주관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11월 제1기 '치과교정 전문치과위생사'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제2기 교육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 치과위생사 교육을 금년 중에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학회 학술집담회를 전문 치과위생사 교육목적과 부합시켜 개최하여 그 집담회 과정을 수료한 치과위생사에게도 전문치과위생사 수료증을 수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 모든 회원들의 연구결과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학회지를 년 2회 발간할 예정이며, 또한 회원들이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위원과 문항개발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치과위생학회가 치과위생사 영역을 확대하고 국민보건과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정성이 뒷받침되어야만 창립이념이 실현될 것이며, 독특한 주체성을 갖고 활동함으로서 더욱 발전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동안 저희 학회는 회원은 많지 않으나 학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특히 창간호가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임원진의 노고와 논문을 개재하신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 12.